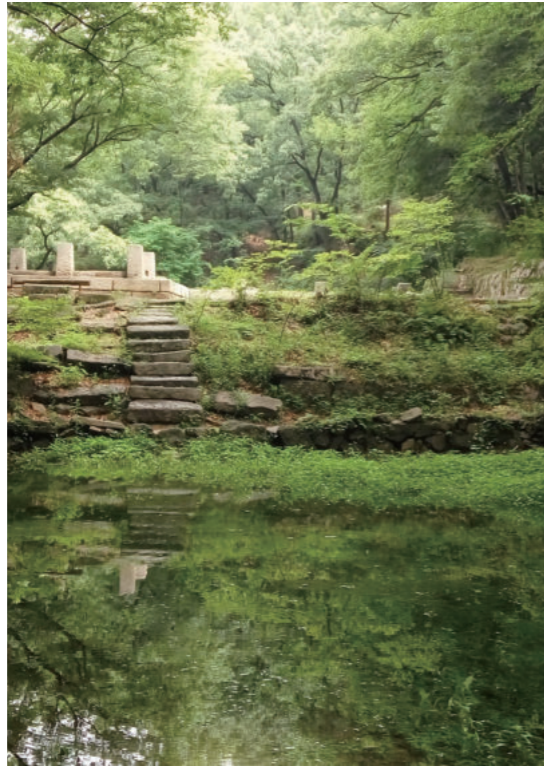


ISSN 1599-7863

# 박물관사람들

2020년 여름 · 70호  
Friends of National Museum of Korea





백석동천

# 박물관사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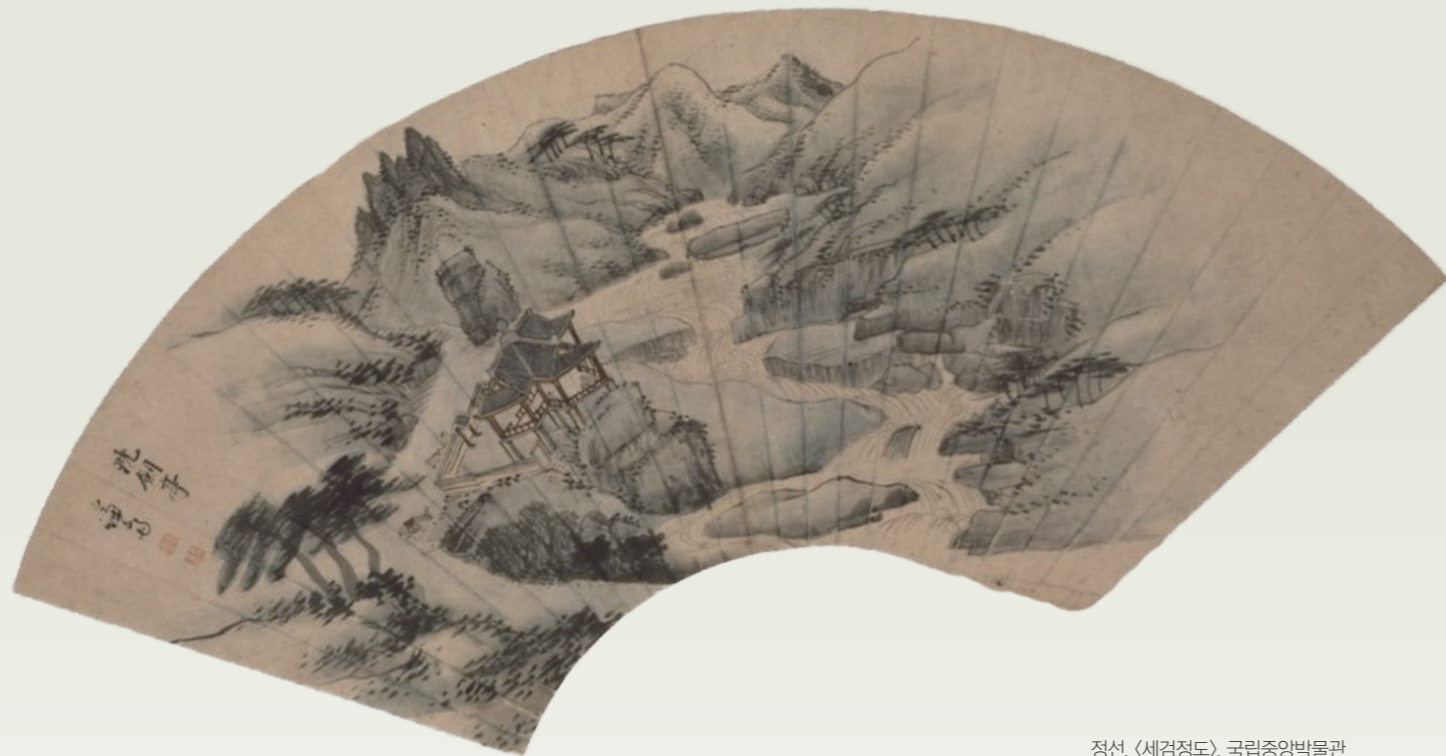
Friends of National Museum of Korea

## 2020년 여름 ■ 70호 Contents

기획/한양의 계곡	계곡에 발담그고	4
	빛그늘, 모든 게 노래	8
	별서 산책	12
문화칼럼	진정한 군자여 오래도록 존경하리!	16
회원마당	그림 가라사대	20
	시간여행지의 귀감, 안성	24
박물관 탐방	러시아 그림은 처음이야	28
박물관 소식	2020년 국립중앙박물관 전시 계획	32
숨은 전시	낮잠	33
국립중앙박물관회는		34

발행일 2020년 7월 5일 발행처 국립중앙박물관회 |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전화 (02)2077-9790~3  
 기획 이재범 편집회원 강현자·계운애·김문숙·문정원·서유미·정은정 진행 김유정 디자인 문화공감 (02)2266-1897  
 전자우편 gomuseum@hanmail.net 홈페이지 www.fnmk.org

회지에 글을 실고 싶은 회원은 박물관회 사무실로 원고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세검정도>, 국립중앙박물관

# 계곡에 발 담 그 고

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전염병이 우리에게 앓아간 것은 일상日常만이 아니었다. 매화꽃 필 무렵부터 시작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벚꽃, 유채꽃, 튼튼 같은 온갖 꽃들이 오히려 눈충을 받는 사이 빼앗긴 들에도 찾아오던 봄이 속절없이 지나고 햇살 따가운 여름이 오고 말았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는 고온다습한 여름에 마스크 쓸 일이 걱정이지만, 그래도 우리에게선 선풍기와 에어컨이 있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비롯한 각종 차가운 음료도 있다. 예나 지금이나 찌는 더위는 마찬가지로 텐데 부채와 죽부인 정도밖에 없었던 옛날 사람들은 어찌 여름을 났을까?

정약용의 『여유당전서』에는 ‘8가지 피서법’이 나와 있다. 1824(순조24)년 여름에 쓴 ‘소서팔사消暑八事’라는 글인데 ‘솔밭에서 활쏘기’(松壇弧矢), ‘회화나무 그늘에서 그네타기’(槐陰鞦韆), ‘빈 정자에서 투호놀이하기’(虛閣投壺), ‘대자리 깔고 바둑두기’(淸簟奕棋), ‘서쪽 연못에서 연꽃 구경하

기’(西池賞荷), ‘동쪽 숲에서 매미소리 듣기’(東林聽蟬), ‘비 오는 날에 시 짓기’(雨日射韻), ‘달 밝은 밤에 탁족하기’(月夜濯足) 등이다. 이 가운데 선비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피서법은 탁족이었다. 중국 전국시대 초나라의 시인 굴원屈原이 쓴 <어부사漁父辭>에 나오는 “창랑의 물이 맑으면 내 갓끈을 씻을 것이요 창랑의 물이 흐리면 내 발을 씻으려네(滄浪之水清兮 可以濯吾纓 滄浪之水濁兮 可以濯吾足).” 하는 구절에서 유래한 탁족은 더위뿐 아니라 복잡한 세상을 떠나 자연을 즐기는 일이기도 했다.

조선 초기의 학자 성현成俔(1439-1504)은 『용재총화慵齋叢話』에 이렇게 썼다. “한성 도중都中에 좋은 경치가 적기는 하나 그중에서 놀 만한 곳은 삼청동三淸洞이 가장 좋고, 인왕동仁王洞이 다음이며, 쌍계동雙溪洞·백운동白雲洞·청학동靑鶴洞이 또 그 다음이다.” 삼청동은 북악산, 인왕동과 백운동은 인왕산, 쌍계동은 낙산, 청학동은 남산 자락의 계곡이다. 이 계곡들은 모두 성안에 있어서 걸어서 쉽게 갈 수 있는 곳들이었다. 그렇다면 경치 좋기로 이름난 곳은 어디였을까? 성현은 세검정 일대를 꼽으며 “물은 맑고 돌은 희어仙境仙境이 완연하니, 와서 노니는 양반들이 끊이지 않는다.”고 썼다. 이익李瀾(1681~1763) 역시 같은 생각이었다. “탕춘대는 도성 북문 밖의 경승지이다. 산이 우뚝 높이 솟고 시내가 넘실대는데 또 크게 새로 정자를 지어서 단청이 휘황하니, 자못 삼절三絶이라고 이를 만하다.”

조선의 왕들 가운데 노는 일에는 가장 뛰어났다고 할 수 있을 연산군이 이곳에 있던 장의사라는 절을 폐사시키고 탕춘대蕩春臺를 지었다. 『연산군일기』에는 “왕이 장의문藏義門 밖 조지서造紙署 터에 이궁籙宮을 지으려다가 시작하지 않고, 먼저 탕춘대蕩春臺를 봉우리 위에 세웠다. 또 봉우리 밑에 좌우로 흐르는 물을 가로질러 돌기둥[石柱]을 세워 황각黃閣을 세우고 언덕을 따라 장랑長廊을 연하



이경윤, <고사탁족도>, 고려대학교박물관



이경윤, <고사탁족도>, 국립중앙박물관



장의사 터 당간지주



탕춘대성

여 짓고 모두 청기와를 이으니, 고운 색채가 빛났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지금은 세검정 초등학교 운동장 한 켠에 ‘장의사 터 당간지주’가 서 있고 큰길 건너 ‘월드캐슬 빌라’가 들어선 언덕 밑에 ‘탕춘대 터’ 표지석이 남아 있다. ‘봉우리 밑에 좌우로 흐르는 물’이란 말처럼 북한산의 문수봉과 보현봉, 형제봉에서 시작된 홍제천의 물줄기가 여기서 북악산에서 백사실을 거쳐 내려오는 물줄기와 만난다. 나중에 숙종이 한양도성과 북한산성을 잇기 위해 쌓은 탕춘대성의 이름도 여기에서 비롯되었다.

경치 좋기로 이름난 성밖 탕춘대까지 가든 가까운 성안 계곡으로 가든 맑은 물에 발 담그고 시 한 수를 읊거나 술 한 잔을 즐기는 선비들의 피서 모습은 많은 글과 그림에 남아 있다. 그 가운데 가장 유명한 이경운李慶胤(1545~1611)의 <고사탁족도>는 같은 주제의 그림이 두 점 있다.

두 그림의 구도는 거의 같다. 배경은 많이 생략되고 물가에 앉아 발을 담근 주인공은 고개를 왼쪽으로 돌리고 있다. 그런데 표정과 옷차림은 전혀 다르다.

고려대학교 소장본의 인물은 차분한 표정인데 어쩐지 좀 우울해 보인다. 발을 물에 담그기는 했지만 옷차림은 여전히 앞섰을 꼭 여민 단정한 모습이다. 골치 아픈 세상사를 떠나 자연에 숨어 사는 고결한 선비 같다. 그러나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의 인물은 윗옷을 풀어헤쳐 불룩한 배가 드러났고 얼굴에는 발그레한 홍조를 띠고 있다. 시선은 술병을 들고 오는 동자를 바라보는데, 아마도 이미 한 잔을 마시고 ‘한 병 더’를 외친 것 아닌가 싶다. 그야말로 피서를 즐기는 유유자적한 모습이다.

탕춘대 터 아래에 있는 세검정은 1747년 영조가 수도 방위를 맡은 군대인 총융청을 이곳으로 옮기면서 군사들의 휴식 장소로 세웠다고 한다. 원래 정자는 1941년 화재로 타 버리고 1977년에 복원했다. 이곳은 조선시대 최고의 물 구경 장소이기도 했다.



탕춘대성에서 바라본 북한산

정약용은 신해년(1791) 어느 여름날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 먹구름이 끼고 천둥 번개가 울리자 술병을 허리에 차고 물구경하러 세검정으로 달려간다. 지금은 정자에 들어갈 수 없고 큰길 바로 옆이라 자동차 소리도 들리지만 북악산, 인왕산, 북한산이 한 눈에 들어오고 너른 바위에 물이 흘러내려가는 모습을 상상해볼 수는 있다.

여기서 홍제천 하류 쪽으로 15분만 걸으면 홍지문과 탕춘대성, 오간수문에 닿는다. 인왕산 치마바위에서 북한산 비

봉까지 연결된 탕춘대성을 제대로 보려면 산을 올라야 하지만 더운 여름날에는 여기서 바라보는 것도 괜찮다. 홍제천 산책로를 따라 10여 분 더 가면 옥천암의 마애관음보살 앞에 서게 된다. 하얗게 호분을 칠해 ‘보도각 백불’로도 불리는 5미터 가까운 거대한 보살상으로 태조 이성계와 명성황후 등 많은 사람들이 찾았던 영험한 기도처라고 한다. 올 여름에는 비 온 다음날 홍제천을 따라 걸으며 옛사람들의 흔적과 기억을 찾아보면 어떨까?

김문숙 회원



세검정



옥천암 마애보살좌상

# 仁王 빛그늘, 모든게 노래



권선응, <삼계동 석마정, <북악산경첩>

긴 시간 육중하기만 했던 철문이 스르르 열리네요. 설레는 걸음은 그대를 찾아 이끌리듯 위로 위로 올라갑니다. 큰 나무 뒤에 숨어 멀찍이 심쿵 하게 만드는 바위 각자 '武漢洞', 그대가 눈에 들어오네요. 석축과 긴 나뭇가지가 내민 손이 버거워도 의연한 자태는 고고합니다.

삼각산 마주 보며 흐르던 물  
방향을 바꿔 흐른다 해도  
종내는 서해로 흐르는 것을  
뉘라서 탓하리오 무계동 물

안평대군이 시를 짓던 그 시절의 자취는 사라졌지만, 선물처럼 만난 무계정사엔 여전히 샘이 흐릅니다. 햇빛 머금은 소나무를 가로지르는 바람과 과거의 블랙홀에 빠져듭니다. 도심이 지척인데 신비한 풍경 너머 안평대군의 그윽한 세상을 엿봅니다.

저녁노을에 물든 불그스레한 안개가 그리도 아름다웠다는 자하문 밖 초입에 위치한 부암동은 조선 왕가와 사대부들의 별서가 많았지요. 기암괴석과 바위산의 풍광이 수려한

인왕 계곡 중에 특히 부암동 서쪽 골짜기를 청계동천이라 불렀습니다.

부암동 주민센터를 지나 창의문로 5가 길로 접어들면 불과 몇 걸음 더 왔을 뿐인데 고요한 적막감이 감돕니다. 청계동천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표시가 서울의 이 비경을 끌어안은 마지막 장치인 것처럼 느껴지네요.

1447년 안평대군은 꿈속에서 거닐던 무릉도원을 안전에게 그리게 하여 걸작 <몽유도원도>가 탄생합니다. 그리고 삼 년 후 유람 중에 <몽유도원도> 속 '붓 끝이 아롱져 펼쳐진 도회원 풍경'과 흡사한 이 청계동천을 발견했지요. 그 이듬해 가을에는 이곳에 별서를 짓고 편액을 걸었습니다. 이상 세계에 대한 안평의 열망은 1442년 왕실 주도의 시화회를 통해 집현전 학사들과 함께 제작한 『비해당소상팔경시첩』에서부터 보입니다. '현실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상경을 상징'하는 <소상팔경도>가 당시 유행을 선도하였으리라 짐작되지만 안평이 모사한 '팔경시'와 그림 모두 전해지지 않아 정말 아쉽습니다.

별서의 당호는 시서화詩書畵 삼절三絶로 불리는 안평대군에게 어울리는 규모 있고 당당한 느낌을 담은 정사精舍라



무계동 각자



소수연림 각자



삼계동 각자



무계정사

했습니다. 무계동 시의 서문에 ‘정신을 휴양하며 은거하기 위한 곳’이라 밝힌 무계정사에서 안평은 두 해 동안 <몽유도원도> 속 은일한 풍경과 달리 당대 최고 문인들과 교류하였습니다. 문학과 예술을 논하고 풍류를 즐기면서 당대 실세들은 무계동을 흐르는 물처럼 함께 정치를 도모했을 것입니다. 안은 넓고 밝은 은밀한 계곡, 정치의 장으로 이만한 곳이 없겠지요. 수백 그루의 복숭아나무와 대나무가 집 주위를 둘러싼 골짜기에 흑독한 더위도 비껴갔을 듯합니다. 무엇보다 책을 사랑한 안평대군의 여름 나기 피서법은 피서披書가 아니었을까요? 한강 용산호에 담담정擔擔亭을 지어 서적 만 권을 쌓아두고 시회를 베풀었으니 말입니다. 학문적 소양과 재주를 갖춘 안평대군은 시문과 서법이 뛰어났으며 또한 서화 200여 점을 소장했던 최고의 컬렉터였습니다. 조맹부체를 터득한 흰칠한 서체는 중국 황제까지 극찬하였으나, 계유정난으로 등극한 세조에 의해 오랫동안 역사에 이름조차 지워지며 소장품은 신숙주의 『보한재집』 14권 ‘화기’편을 통해 소개의 글만 겨우 전해집니다. ‘천년을 넘어 전해지기’를 소원했던 <몽유도원도>와 더불어 천하 명필 안평대군의 제목글씨와 ‘제시題詩’, ‘제

기題記’는 일본 덴리대학 도서관에 소장되어 타국의 국보로 지정되었으니 그 또한 가슴 아픕니다.

무계정사 아래쪽, 인왕산 북서 방향 계곡 기슭에는 긴 세월을 숨어 지낸 아름다운 별서가 있습니다. 이 별서의 최초 형태는 조정만의 소수운련암인데, 한수옹 권상하가 신축년(1721년) 정이 조정만에게 써준 ‘물을 품고 구름으로 발을 삼는다.’는 물 흐르듯 유려한 소수운련암 각자만 암반에 남아 있습니다. 1753년 권신응이 그린 이곳 풍경에 소수운련암과 삼계동 각자 그리고 기와집이 보입니다. 이후 19세기 세도정치를 주도한 안동 김씨 김홍근이 세 갈래의 물이 합쳐져 흐른다는 삼계동정사의 주인이 됩니다. 허련은 『소치실록』에서 ‘삼계동 산정은 시내와 산이 깊숙하고 숲이 울창한 곳에 있어 경치가 신선의 별장과 같다.’면서 사랑채인 현대루, 그 맞은편 계류의 월천정, 사랑채 서쪽 중국식 집 한 채와 시냇물 소리 나는 나무 사이에 육모정이 있고, 굽은 난간의 작은 정자는 물이 흘러 소리 나는 곳에 떠 있으며, 시내의 근원을 더듬어 올라가니 가뭍에도 마르지 않는 샘이 있다고 감탄합니다. 이 아름다운 별서를 소유하고 싶었던 흥선대원군의 욕심은 고종을 하룻밤 행차하게 하니, 김홍근은 ‘임금이 머물던 자리에 감히 신하가 살 수 없다.’고 이곳을 떠나게 됩니다. 드디어 삼계동정사를 차지한 흥선대원군이 별서의 앞산이 모두 바위라 호를 석파라 하면서 우리에게 익숙한 석파정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왕가의 별장으로 사용하던 석파정은 한국전쟁 후에 일반에 매각되어 고아원 등으로 용도 변경되거나 훼손 변형되면서 잊혀 갔고, 출입이 금지되었지요. 다만 손재형이 매입했던 사랑채 서쪽에 있던 중국풍의 별당 채가 홍지동 석파랑에서 대원군 별장이라 불리며 석파정으로 오인되곤 했습니다.

2012년 서울미술관 개관과 함께 새 주인의 정원으로 돌아온 석파정의 모습을 들여다볼까요? 진입 영역부터 너른

바위의 형태가 빼어나게 아름답고 물길이 넓어 보입니다. 현재는 사랑채, 안채, 후원 별채와 상류에 중국식 정자가 남아 있지요. 사랑채 누마루의 고막이벽을 장식한 수壽자, 부富자와 귀갑 문양이 화려하고, 벽돌 문양을 넣은 아치형 중문과 높은 위치에 자리한 별채도 눈에 띕니다. 사랑채에 너른 그늘을 드리운 품위 있는 노송을 지나 삼계동 각자 바위를 조망하며 산책길을 오르면 ‘유수성중관풍류流水聲中觀楓樓(흐르는 물소리 속에서 단풍을 바라보는 누각)’라는 별칭을 가진 정자가 나타납니다. 『소치실록』의 기록이 무색하게 물 흐르는 소리도 들을 수 없고 물이 아닌 공중에 떠 있습니다. 굽어진 석교로 진입하니 기단부가 장대석 기둥이고 기둥 사이에 벽돌 아치 장식이 있습니다. 화려한 문살 문양이나 화강암 바닥 등 건축 당시의 독특한 이국 취향도 엿볼 수 있습니다. 인왕산과 석파정이 맞닿은 가장 깊숙한 곳에는 코끼리 형태의 너럭바위가 있습니다. 바위산인 인왕산의 특징을 잘 표현하는 이 자연 석조물 아래 원형의 수소가 있어 계곡물이 흐릅니다.

석파정에는 두 개의 주련이 있었는데 ‘강일독경 유일독사



석파정 계류 너른 바위



석파정

剛日讀經 柔日讀史’, ‘유주학선 무주학선有酒學仙 無酒學禪’입니다. 홀수 날에는 경전을 읽고, 짝수 날에는 역사를 읽는 석파가 술이 있으면 신선을 배우고 술이 없으면 참선을 배우며 인생의 여유와 허망함을 아로새기지 않았을까요? 난이라도 치는 날엔 석파정 동쪽 북악산 백석동천에 거했던 스승 추사를 떠올리며 더욱 허허로웠을 듯합니다.

아름다운 별서 바깥 고갯길 중턱에는 돌을 던져 돌이 붙으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커다란 바위가 있었습니다. 소원 거리를 짙어진 중생들이 쉬어가며 엮은 소박한 바람은 간절한 자국으로 부침바위에 모였지요. 조선시대 도성 밖 가난한 달동네 이름은 그렇게 부암동이 되었습니다. 관에서 구휼을 베풀어 전매로 메주를 납품하던 가마터가 자하문터널 위에 남아 있습니다. 문화와 예술이 모이는 공간과 옛 메주가마골의 묵은 분위기가 공존하는 곳. 영화 ‘기생충’의 촬영지로 각광받는 자하문터널 긴 계단에 서서, 빛이었고 기쁨이었던 별서를 돌아보면 아름다움이 덧없습니다. 🐾

정은정 회원

# 별서 산책

라떼는 말이오. 시집을 한쪽 겨드랑이에 끼고 다니던 시절이 있었소. 가끔은 시집을 꺼내보듯 산책을 나서 보는 거요. 산책은 사람을 참 설레게 하오. 시집을 펼쳐보는 듯한 여유가 함께 하기 때문이오. 혹자는 인생을 잘 사는 기준을 꼽는다면 많은 산책길을 갖는 것이라고 했소. 바쁘게 달리지만 말고 여유를 갖자는 뜻인 듯하오. 인생의 아름다운 산책로를 발견하는 일 말이오. 그런 여유로움을 찾아 백사실계곡으로 나서 보는 건 어떠오. 백사실계곡은 북악산 줄기의 하나로 계곡이라기보다는 숲길에 가까워 도시에서 언제든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곳이오.



연못과 정자 주춧돌

백사실계곡으로 가다 보면 이정표에 능금마을 표지가 있소. 창의문 밖 부암동 일대에 능금마을이 있는데, 5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이 마을의 능금은 경림금京林檎이라 하여 서울의 유명한 특산물이었다고 하오. 여기에는 역사적인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소. 1623년 인조반정 당시 의군들이 창의문을 부수고 창덕궁으로 진격하여 광해군을 퇴위시켰는데, 이때 반정에 협조했다 하여 인조가 창의문 밖 백성들에게 능금나무와 자두나무를 나눠준 일이 시초가 되었다고 하오. 현재는 능금마을이란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사과나무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소.

능금마을을 지나 좁은 길로 살짝 꺾어 들어가면 숲으로 드는 외길이 나타나오. 그리고 갑자기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된 것 같은 착각마저 들게 하는 아름다운 숲속 정원이 펼쳐지오. 이곳이 바로 백사실계곡이라는 곳이오. 비밀의 정원이라고도 하는 이곳은 숨겨진 비경이라고 불릴 만큼 한적하고 수려한 곳이오.

이곳은 서울 종로구 부암동에 위치한 계곡으로, 북악산에서 발원한 계곡물에는 1급수 지표종인 도롱뇽을 비롯해 버들치, 가재 등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고 있는 대표적인 자연생태 명소라고 하오. 이 계곡은 울창한 숲이 어우러진 맑은 정원으로, 봄은 봄대로 가을은 가을대로 계절마다 특색의 분위기를 갖추고 있어 사색의 멋을 부리고 싶은 아름다운 산책로라오. 그래서 계곡이라기보다는 숲길로 더 각광을 받는 곳이오. 또한, 깨끗하고 한적한 이곳은 조선시대 선비들이 이용했던 별서 터로 선인들의 이야기가 깃들어 있어서 흥미로움도 더한다오.

서울지역의 별서로는 흥선대원군 별서인 석파정, 김조순 별서인 옥호정, 심상응 별서인 성락원 등이 있는데, 터만 남아 있는 옥호정처럼 이곳도 현재 별서가 있었던 흔적만 남아 있소. 별서 터에는 연못이 있고 연못에 다리를 걸치



별서 터 사랑채



백석동천 각자

고 있는 연당蓮堂인 육각 정자의 초석이 그대로 남아 있소. 연못 옆의 높은 대지는 사랑채 부분과 안채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현재 건물터에는 사랑채의 초석과 석축만 남아 있고, 사랑채 뒤쪽으로 보이는 빈터는 안채가 있었던 곳이오. 마을과 떨어진 곳에 수려한 경관을 배경으로 정자와 연못까지 배치되어 있어 별서의 구성요소를 두루 갖춘 격조 높은 면모를 지니고 있소. 주변에 흰 돌이 많고 자연 경관이 수려하다고 하여 '백석동천'이라 불린다오. 부근에 '백석동천白石洞天'이라고 해서채 정자로 반듯하게 새긴 각자 바위가 있고, 별서 터에서 서쪽 산 언덕을 바라보면 정상 가까운 곳에 '월암月庵'이라 새겨진 큰 바위도 있소. 이곳은 1800년대에 조성된 별서 유적으로 전통조경 양식의 연못, 정자 터, 각자 바위 등의 보존상태가 좋아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명승지라오.



별서 터 앞에 세워진 안내판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니, 동아일보가 북악팔경 중 하나로 백석동천을 선정하고, 1935년 당시의 연못 정자 사진을 게재한 내용이 있소. 당시만 하더라도 육각정자가 그대로 있어, 정자의 주춧돌만 남아 있는 현재와 대조적이오.

이 아름다운 숲에 별장을 지어 풍류를 즐겼을 주인의 내력이 궁금하지 않소? 이 별서는 주인이 여러 번 바뀌었다 하오. 예전엔 이곳을 백사실계곡이라 불렀기 때문에 조선 중기의 문신이자 오성대감으로 유명한 백사 이항복의 별서라고 여겼었다 하오. 그러다가 2012년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서울시 발행 <동명연혁고>와 연암의 손자 박규수의 <환재집>, 추사의 <완당전집>에서 자료를 모아 추론하여 '추사 김정희 집안의 소유가 되었다.'는 내용을 발표하였



소. 추사의 문집인 <완당전집>에서 '선인이 살던 백석정을 예전에 사들였다.'라는 내용과 '내 북쪽 별서는 옛 백석정 옛터에 있다.' 등의 내용을 확인했기 때문이오. 추사의 생부 유당 김노경이 매입하여 살다가 추사가 이 땅을 사서 새롭게 별서를 지었다는 것이오.

하지만 애초에 별서를 가꾼 사람은 따로 있다 하오. 통의 도시연구소의 최근 연구에 의하면, 애초의 주인은 숙종대에서 영조 때까지 살았던 문필가이자 서화가 연객 허필이라고 하오. 그의 시에 '북한산성 남쪽 백석별업에서 운덕정운 및 표암 강세황과 함께 부賦를 짓다.'라든지 연암 박지원의 손자 박규수의 <환재집> 속에 '추장백석정'이라는 시의 설명에 '석경루 뒤쪽에는 수석이 매우 기이한데 그 위로 백석정 옛터가 있다. 세상에서 전하기를 허씨 성 선인이 머물던 곳인데 어느 때 진인인지는 알 수 없고 도홍경이나 환진인 같은 류였을 것이다.'라고 한 정황으로 볼 때 연객 허필이 한때 운영하던 별서였을 것이라 하오. 마지막으로 연객과 유당에 이어서 이곳 백석동천에 별장을 소유했던 사람은 연암 박지원의 아들 박종채라 하오.

여러 주인들이 거쳐 간 이곳은 많은 문인 소객들이 찾아와 운치를 즐겼다고 하오. 눈을 감고 숲 어딘가에서 그들이 읊었을 시귀를 상상해 보는 건 어떠오.

산책을 다닐 때마다 마음이 한 뼘씩 자라는 기분을 느껴보오. 북악산 줄기에 숨어 있는 비원을 찾아 떠나 보는 것 또한 삶을 윤기 나게 하는 충전소가 될 것이오. 삶을 잠깐 내려놓고, 흠과 바람 그리고 쭉쭉 흐르는 물소리가 있는 숲과 더불어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다 보면 '인생 참 별거 없구나.'라는 한 곳 힐링을 보너스로 받을지도 모를 일이오. 산책이란 뭔가 있을 거 같아서 가게 되는 것보다 가다 보니 뭔가가 있더라 말이오. 그러니 그냥 가보는 거요.

강현자 회원





호병, <김육 초상>, 실학박물관



호병, <김육 초상>, 실학박물관



에서 그려온 것이기에 더욱 흥미롭다. 김육은 중국이 명나라에서 청나라로 교체되는 위험한 시기에 네 차례나 사신으로 방문했으며, 중국인 화가로부터 크고 작은 세 점의 초상화를 그려왔다.

조선시대에 외교적 임무를 띠고 중국에 다녀온 사행은 약 500여 차례에 달했는데 사행단 규모는 한 번에 보통 300여 명에 이르고 왕복 다섯 달 정도 걸리는 긴 여정이었다. 정사나 부사 같은 관리들은 북경에서 체류하면서 종종 초상화를 그려서 돌아왔으며, 실제로 이런 작품이 여러 점 남아 있고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김육의 경우다.

김육은 1636년 사신으로 임명되어 6월에 북경을 향해 출발하는데, 이때의 사행은 여러모로 특별했다. 사행단은 청나라 군대의 공격을 피해서 만주 벌판 대신 바닷길을 이용했기에 일정이 지체되어 11월야 북경에 도착할 수 있었다. 간간이 청군이 조선을 침공했다는 풍문을 들었고 이듬해 4월이 되어서야 뒤늦게 조선이 항복했다는 하늘이 무너지는 소식을 접했다. 병자호란의 와중에 명나라에 가 있던 김육의 사행단은 귀국조차 위태로운 상황이었지만, 우여곡절 끝에 다시 바다를 거쳐 돌아오게 되어서 일 년에 걸친 긴 여정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는 <조천도>라는 화첩이 소장되어 있다. 1624년 사신으로 파견된 이덕형(李德炯) 일행이 사행한 모습을 25점으로 그렸던 것을 후대에 다시 모사한 것이다. 이 작품을 통해서 김육이 겪은 고생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망망대해 악천후 속에서 맞닥뜨린 용오름 현상과 짐체만 한 고래가 얼마나 놀랍고 무서웠는지 용과 이무기로 표현했을 정도

## 진정한 군자여 오래도록 존경하리!

여기 초상화 두 점이 있다. 하나는 검은 관모를 쓰고 초록색 관복을 입은 채, 표범가죽이 덮인 의자에 앉아 있는 인물을 그렸다. 얼굴을 보면 정면을 쳐다보는 고집 센 노인인데 마치 얼음처럼 차고 단단한 분이라는 인상을 풍긴다. 차마 무서워서 가까이 다가가지 못할 정도다. 또 다른 그림에는 커다란 소나무 아래 풍성한 두루마기를 입은 노인이 서 있다. 길고 허연 수염에 산신령 같은 모습으로 방금 호랑이라도 타고 도착한 것 같다.

초상화 속의 주인공은 조선 후기의 명신으로 추앙받는 잠곡(潛谷) 김육(金瑁, 1580-1658)이다. 그는 장원급제를 한 후에 삼정승을 두루 지내면서 대동법을 시행하고 동전의 유통, 수례의 보급 등을 통해서 백성들의 험벗은 삶을 보살폈다. 동시에 나라 살림을 풍족하게 만드는 여러 저술과 다정다감한 서정시를 많이 남긴 참된 선비였다. 이런 김육의 모습을 우리는 초상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모두 중국

<조천도>, 국립중앙박물관





〈김육 초상〉 세부

이다. 위협천만한 고생 끝에 화려한 북경의 자금성에 도착했지만 구경은커녕 백척간두에 놓인 고국의 처지를 한탄하며 가슴 졸이는 나날을 보내야만 했다. 김육은 자신이 겪은 사행의 전 과정을 일기 형식으로 꼼꼼하게 기록했는데, 여기에 초상화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호병(胡炳)이라는 화가가 초상화 두 점을 그렸으며, 그 대가로 양 한 마리, 거위 한 마리, 인삼 석 냥, 부채 세 자루를 주었다고 한다.

커다란 전신좌상의 초상화는 얼굴을 보면 천연두를 앓은 흔적까지 자세하게 그렸고, 학이 한 마리 수놓아져 있는 홍배와 의자에 걸쳐진 표범가죽 무늬도 정교하게 표현했다. 당시 조선에서는 종교적인 신상처럼 배경을 생략하고 무표정한 얼굴에 근엄한 자세로 주인공을 묘사하는 형식의 초상화가 유행했는데 이를 따른 것이다. 대개 두 손을 드러내는 중국 초상화와는 달리 양손을 모두 소매 속에 감추고 있는데, 아마도 조선식으로 그려달라고 중국인 화가에게 요구했던 모양이다. 오른쪽 위에는 숙종이 지은 시가 적혀 있다.

또 다른 초상은 갈색의 와룡관(臥龍冠)과 흰 학창의(鶴氈衣)를 입은 채 커다란 소나무 아래 서 있는 김육의 모습을 그렸다. 인물은 작게 그렸지만 얼굴에는 역시 천연두 자국이 보인다. 이렇게 바위와 소나무가 있는 산수를 배경으로 하고 평상복 차림으로 주인공이 편안한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은 당시 조선

에서는 보기 드문 파격적인 도상이다. 소나무 아래 서 있는 김육의 모습은 그가 추구했던 한가로운 전원생활과 통하는 것이다. 더욱이 소나무를 통해 은일의 삶을 대표하는 도연명(陶淵明)을 상징하는 것이고, 와룡관과 학창의 차림은 제갈량(諸葛亮)의 이미지와 겹쳐진다. 큰 뜻을 품었으나 부득이 세상을 등지고 고향으로 돌아와 은거했던 도연명과, 재야에서 명성을 쌓아가다가 대의명분을 위해 출사를 했던 제갈량을 동시에 따르고자 했던 김육의 마음이 잘 드러나는 초상화다. 오른쪽 위에 적혀 있는 것은 영조가 지은 찬시이다.

김육은 64세 되던 1643년에 청나라의 첫 번째 수도였던 심양을 방문했다. 당시 이곳에 인질로 잡혀 있던 소현세자가 잠시 귀국을 하게 되자 청은 소현세자의 아들인 원손을 볼모로 삼기 위해 불러들였다. 이에 김육은 원손을 모시고 심양에 갔다가 다음해 8월 다시 원손과 함께 돌아왔다. 이때도 중국인 화가 맹영광(孟永光)으로부터 초상화 한 점을 그려왔다.

맹영광은 검은색의 관모와 푸른색 도포를 입은 김육의 상반신 모습을 그린 후, 시를 지어 원편에 적었다. 작은 소품이지만 늙어서도 눈빛이 깨끗하고 맑은 김육의 모습을 잘 표현했다. 이렇게 작은 초상화는 소조(小照)라고 하는데 주인공의 자의식을 상징하기 때문에 제사에 쓰는 것이 아니라 서재 같은 곳에 걸어놓고 그 인물을 존경하고 따르는 교훈적 기능을 더 중시했다. 이 역시 후대 많이 그려지는 소조 초상의 선구적인 사례가 된다. 이렇게

김육이 중국에서 그려온 세 점 초상화는 신문물의 수용에 적극적이었으며 실용적인 지식을 중시했던 실학적 태도가 반영되어 있다.

김육의 초상화는 그가 죽은 후에도 계속하여 관심의 대상이었다. 그의 손녀는 현종의 왕비가 되어 숙종을 낳았으므로, 김육은 숙종의 외증조 할아버지가 되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숙종은 친히 김육 초상화를 보고 시를 짓기까지 했던 것이다. 김육의 청풍 김씨 집안은 왕의 외가로서 조정에서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으며 과거시험을 통해 높은 벼슬에 오른 한당(漢黨)을 이끌었다. 그의 손자 김석주(金錫胄)는 대동법의 시행을 놓고 송시열(宋時烈)이 주도하는 재야 출신의 산당(山黨)과 정국의 주도권을 놓고 치열하게 다투기도 했다. 대동법은 각 지방 특산물을 대신해서 쌀로 공물을 내게 함으로써, 백성들에 부과되던 세금이 줄어들고 양반이 더 많이 내도록 하는 공평한 세제였다. 영조 역시 대동법을 시행했던 김육을 칭송하고 초상화를 본 후 숙종을 따라 시를 지었다.

김육의 자손들이 막강한 외척세력으로 권력을 휘두르는 과정에서 오히려 청풍 김씨는 몰락의 길을 걷기도 했다. 하지만 김육의 6대 손녀가 다시 정조의 왕비가 됨으로써 일가의 부침에도 불구하고 김육의 초상화는 꾸준히 역대 임금이 관심을 받게 되었다. 정조는 자신의 처가쪽 조상이자 명재상이었던 김육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으며, 김육의 초상화를 궁궐에 가져오도록 하여 살펴보았다. 이때 정조가 지은 시는 『홍제전서』에 수록되어 있다.

맑고 높구나, 공의 초상이여, 생전의 풍채와 방불하네.  
대동법에 큰 경륜 펼쳐 끝내 한마음으로 봉공하였고  
세상을 구제한 재능과 마음을 다하는 충성은  
백성 사랑에 마음 두어 부지런하고 너그러우며 엄격하였네.  
백성이 지금까지 은혜를 입으니 지극한 정성이 서로 통한 것이다.  
진정 군자여, 오래도록 존경하리!

정조는 이 시를 통해 김육을 위대한 성현의 지위에 올려놓을 정도로 칭찬했다. 이렇게 김육은 비록 한미한 출신이었으나 경세제민에 매진한 유능한 관료로 활약하여 명재상으로 높이 존경을 받았다. 또한 그의 초상화는 중국에서 그려왔다는 독특한 이력과 특이한 도상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큰 관심을 끌면서 많은 귀감이 되고 있다. 🐼

조인수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맹영광, 〈김육 초상〉, 실학박물관

# 그림 가 라 사 대

늙은 아버지를 업고 있는 자식의 모습, 단박에 알아차리셨지요?

예, 한자 효孝, 효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옛 중국의 이름난 효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한겨울이라 어머니가 먹고 싶다 하신 죽순을 구할 수 없었던 오나라 맹종이 대숲에 앉아 엉엉 울었더니 언 땅에서 죽순이 솟아났답니다. 어머니가 겨울에 잉어를 찾으시자 맨몸으로 뽕뽕 언 강을 녹이려 했던 진나라 왕상에게는 잉어 두 마리가 절로 튀어나왔지요. 어려서 어머니를 잃은 한나라 황향은 여름이면 베개에 부채질을 하고, 겨울이면 제 몸으로 이부자리를 따뜻하게 하며 아버지를 모셨다고 합니다. 성군으로 이름난 순임금은 임금 되기 전 계모의 학대에도 내색 없이 순종하며 거문고를 땀다지요. 고대 인물인 육적은 어느 잔치에서 귀하다 귀한 굴을 보고 집에 계신 어머니 생각에 차마 먹지 못하고 몰래 품에 숨겼다고 합니다.

오래전, 어린 마음은 마법 같은 이변이 그저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땅덩어리가 크디큰 중국이 효에 있어서는 우리보다 한 수 아래라고 느꼈지요. 우리에게서 인당수에 몸을 던진 심청이나 죽은 아버지를 살려낸 바리공주가 있으니까요. 적지 않게 나이가 든 지금, 새삼스레 옛이야기에 마음이 움찔움찔합니다. 팔순을 훌쩍 넘기신 부모님께 여전히 천둥벌거숭이 같은 자식이라는 걸 모르지 않거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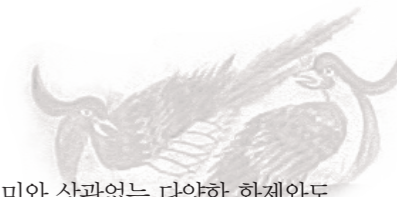
옛 그림 앞에 섭니다. 죽순, 잉어, 부채, 거문고 그리고 굴 중에서 서너 가지가 한자 위에 무심히 포개져 있습니다. 중국 효자들 이야기를 모른다면 수수께끼 같은 그림, 문자도文字圖입니다.

글씨일까, 그림일까 싶은 문자도, 그 뿌리는 중국입니다. 우리에게 처음 전해진 중국의 문자도는 백수도로 큰 壽 안에 수백 개의 작은 壽가 가득 쓰여 있었습니다. 壽 문자도에는 획 속에 오래 산 유명한 신선들을 촘촘히 그려 넣은 형태도 있습니다. 연초면 주고받았던 세화 중 하나로 '오래오래 사세요.'라는 덕담을 전했습니다.

행복(福), 출세(祿), 장수(壽)를 소망하는 길상문자도가 한자문화권인 중국, 일본, 베트남 등에서 주류였는데 유독 우리에게서 유교문자도가 백수백복도의 유행을 앞섰다고 합니다. '효제충신의의염치孝悌忠信禮義廉恥', 무려 여덟 글자입니다.



〈문자도〉, 국립민속박물관



효·제·충·신은 『논어』에서 예·의·염·치는 『관자管子』에서 왔습니다. 효제문자도 혹은 효제도라 불리는 유교문자도의 이른 시기에는 수壽자 그림처럼 큰 글자 안에 관련된 고사나 설화가 빼곡하게 그려졌습니다. 차츰 이야기에 등장하는 소재들이 한자의 획을 차지하며 그림 같은 글자, 글자 같은 그림이 되었습니다. 숨겨진 이야기를 따라가 봅시다.

제梯 글자에는 꽃과 새가 등장해 화조도 같습니다. 옥매화나 산앵두나무의 꽃과 잎은 서로 돕고 의지하는 형제애를 상징합니다. 할미새 두 마리가 정답게 벌레나 꽃잎을 나누어 먹으며 우애를 드러냅니다. 시끄럽게 우는 모습은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다급할 때 서로에게 주의를 당부하는 것입니다.

충忠 글자에는 충절을 뜻하는 대나무를 배경으로 잉어나 새우가 몸을 활처럼 구부리고 있습니다. 용문을 차고 올라서 용이 된 잉어처럼 과거에 급제하고 임금에게 충신이 되라는 의미입니다. 새우鰕와 조개蛤는 발음이 화합和合과 비슷해 군신 간의 화합을 뜻합니다.

신信 글자에는 서왕모西王母가 온다는 소식을 전하는 파랑

새(靑鳥)나 인면조와 진나라 궁궐의 동산, 상림桑林에서 편지를 들고 온 흰기러기(白雁)를 그렸습니다. 믿음은 서로 약속하고 뜻을 전하는 가운데 싹트기 때문입니다.

예禮 글자에는 공자가 제자를 가르친 행단의 살구꽃이 피어 있습니다. 중국 최초의 문자인 낙서洛書를 거북이가 등에 지고 나와서 세상에 예가 갖춰졌다는 의미로 거북도 그려집니다.

의義 글자의 복숭아는 유비, 관우, 장비의 도원결의桃園結義를 뜻하며, 물수리 두 마리는 부부 간의 정다운 인연을 노래합니다.

염廉 글자에서는 봉황의 고고한 자태가 눈에 띄입니다. 수천만 리를 날고 배가 고파도 인간이 먹는 조를 쪼아 먹지 않고, 오동나무 그늘에서만 잠을 잔다는 상서로운 새는 청렴함의 상징입니다. 염치를 아는 군자는 들어서고 물러날 때를 안다는 의미에서 뒷걸음질하는 게도 그려집니다.

치恥 글자에는 백이, 숙제의 절개를 상징하는 수양산의 매화와 달, 충절비와 누각이 있습니다.

우화 속 장면들을 펼쳐 놓은 듯 동식물이 글자 조형물에 울

라타서 뛰어놀고 있습니다. 각 문자의 짝들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격은 아닌지, 맞춤이다 싶은 상징들이 우리에게 없는지 생각해봅니다. 탄지를 걸어보면서 어느새 여덟 덕목을 곱씹어 보게 됩니다.

효제도는 조선시대 백성들을 교화시키려는 도덕 교과서 역할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원히 변치 않을 소망을 다독이는 마음의 부적이었습니다. 福 문자도가 행복을 가져오듯, 孝 문자도는 효자를 만든다는 믿음이 담겨 있으니 말입니다.

우리의 유교문자도는 국제적인 예술입니다. 그림과 글씨의 결합이라는 유사점으로 비주류를 대변하는 거리 미술, 서구 그래피티(graffiti art)의 조형미와 비견되곤 합니다. 그렇지만 기원과 시대적 배경은 차이가 큼니다. 민화 문자도가 조선 후기 서민들의 양반문화에 대한 동경과 서민사회의 성장을 배경으로 등장한 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문양이나 색감이 현대적인 우리의 민화 문자도, 자유로운 상상력도 매력으로 손꼽힙니다. 책거리 기물이 상하로 배치된 책거리문자도, 소상팔경도나 관동팔경도가 아래위로 배치된

산수문자도 등 본래 한자 의미와 상관없는 다양한 화제와도 신나게 어우러집니다. 성난 물결과 토산물이 그려져 바다 내음이 물씬한 제주 문자도처럼 지역적 개성도 뚜렷합니다.

모필을 사용하는 전통적인 방법 이외에도 가죽 붓을 재빨리 구사하는 혁필화나 인두로 종이를 지져가며 그리는 낙화 기법도 쓰입니다. 비상하는 새의 날갯짓 같은 율동감이 넘치고, 고가구의 나뭇결 같은 촉감적인 그림이 새로운 미감을 경험케 합니다. 근래에는 한글을 이용한 문자도가 활발히 제작된다고 합니다.

다시 孝 문자도를 바라봅니다. 철딱서니 없는 마음은 제철이 따로 없는 먹거리가 문 앞까지 배송 가능하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먼저 느낍니다. 그렇지만 바로 문게 되네요. 신선함과 신속함이 묵직한 효의 무게를 얼마나 덜어주고 있을까요.

현대판 문자도에는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달라진 세태에 발맞춰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를 뜻하면 서요. 자식이 어버이에게 품은 마음의 온기를 고스란히 전해주는 기적 같은 기술이 서둘러 나와야 할 텐데 싶습니다.

문정원 회원

〈효제문자도〉, 가회민화박물관



# 시간여행지의 귀감, 안성

여행의 매력은 낯설음에 있다고 믿는 사람이 같은 지역을 거듭 찾아가려면 아무래도 ‘연고’라는 것이 필요하다. 작년부터 우연히 나와 안성 사이에 그런 연결 고리가 생겼다. 방문이 잦아지니 자세히 보게 되고, 구석구석 숨은 매력을 발견하는 즐거움이 쏠쏠하다.

예로부터 안성은 삼남지방의 사람과 물자가 육로를 따라 한양을 갈 때 거치는 교통의 요지였다. 자연히 시장이 발달하고 국밥이 유명한 곳이었으며, 과거를 보러 먼 길 올랐던 선비들이 이제쯤 의관을 가다듬고 칠장사에 들러서 합격을 기원하는 곳이었다.

안성 종합운동장 가까이에는 안성 객사가 자리하고 있다. 고려 전기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하지만 기록은 전하지 않고, 지붕 위에 글씨가 새겨진 기와가 남아 있어 숙종 21년(1695)에 중수되었음을 알 수 있다. 현판에 백성관白城館이라고 적혀 있는데, 안성의 통일신라시대 이름이 백성이다.

객사(객관)는 임금을 상징하는 전패를 모신 왕권의 상징으로 지방의 공공건물 가운데 가장 높은 위계를 지녔다. 새로 부임한 지방관은 먼저 객사에 들러 배례를 올렸고, 하직하고 떠날 때에도 마찬가지로 하며, 임기 동안 매달 초하

루와 보름에 정기적으로 망궐례를 올렸다. 객사는 사신이나 중앙에서 파견한 관리들을 위한 관영 호텔이고, 때로는 연회장이기도 했다.

당연히 관아와 함께 구시가 핵심부에 있어야 할 객사 위치가 종합운동장 옆이라니 이상하다. 조사하니 지금의 안성 교육지원청 자리가 원래 위치인데 일제시대에 명륜여자중학교 자리로 옮겨져 교무실로 쓰이다가 1995년에 해체 보수하면서 지금의 위치로 왔다. 일제시대에 자리를 옮기면서 기둥의 아랫부분이 잘려서 배흘림 기법이 보이지 않고 기둥 사이 간격도 좁아졌더니 한마디로 규모가 축소되었다. 한쪽 날개가 잘려 나간 채로 남아 있거나 헐려 버리지 않았으니 그나마 다행이다.

늦은 오후에 도착한 안성 객사는 인적 없이 홀로 서 있었다. 정면을 살피다 뒤로 돌아가니 뒤뜰 담장 위에 동네 참새들이 모여서 시끄러웠다. 담 아래 배수구에 파드득거리는 새끼참새가 보였다. 날기 연습에 실패한 모양인데 사람들이 나타나니 참새들이 그렇게 동요했던가 보다. 같이 간 초등학생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녀석을 손아귀에 잡아 올리니 참새들은 오히려 죽은 듯 침묵했다. 객사 지붕 위로 자리를 옮기고는 조용히 사태를 보는가 보다. 내 마음이 더 졸여서 얼른 놓아주라 했다. 어미가 애타게 지켜보고 있던 말이다.

객사를 떠나 일죽면으로 달려서 이번엔 영창대군묘를 찾아갔다. 겨우 여덟 해를 살았던 어린 왕자의 무덤이다 보니 누가 방문을 해도 엄청 반길 듯하고 혼자 남겨질 때는 아쉬워서 훌쩍일 듯하다. 상석 양쪽에 서 있는 동자석 둘은 또래인 묘주를 상대하느라 하루가 빨리 지나겠다.

머릿속으로 영창대군의 가족사진을 그린다. 보이기엔 할아버지 같지만 아들을 더없이 사랑한 아버지 선조는 임진왜란 하면 한숨과 함께 등장하는 바로 그 왕이다. 자신이 후궁 소생이라 정비에게서 아들을 얻는 것이 일생의 소원이던 사람. 쉰 다섯에 계비 인목왕후에게서 얻은 적장자가 얼마나 사랑스러웠을까! 아쉬운 점이라곤 그 아들을 겨우 세 살 때까지밖에 지켜주지 못한 일이다.



안성객사

젊은 어머니는 인목왕후 김씨이다. 열일곱에 선조의 계비로 간택되었고 후에 정명공주와 영창대군을 낳았다. 실록의 평가는 그녀가 어린 만큼 궁궐 정치를 몰라서 주변의 의견에 휘둘렸으며 본인도 친정도 재산 확보에 애썼다 한다. 사실 그 성품을 알기엔 자료가 부족하다. 인생의 모든 고비에 자신이 가진 선택의 여지가 너무나 궁박해서, 그 점이 가장 안된 인물이다. 아까 본 참새들의 무력감과 절박함을 누구보다 잘 알았을 것이다.

부모와 반대쪽에는 배다른 형님 광해군이 서 있다. 후궁 공빈에게서 선조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으며 세 살에 친모를 여의었다. 임진왜란 중에 분조를 이끌며 지도력을 발휘하여 아버지 선조와 대비되게 신하와 백성의 신망을 얻었으나, 이로 인해 선조의 질투와 견제에 시달렸다. 불안한 16년간의 세자 기간이 지나고 서른 셋에 마침내 보위에 올랐는데, 이후에 영창대군과 인목왕후 일가는 이런저런 사건에 엮여 가혹한 종말을 맞게 되었다.

아버지와 오라비 서넛이 죽임을 당하는 멸문의 화는 선대 왕비들에게도 선례가 있다만, 인목왕후는 어린 아들의 처참한 죽음 이후에도 10여 년 동안 덕수궁 석어당에서 피폐한 감금생활을 해야 했다. 인조반정으로 극적인 복권이 이루어진 후, 대비의 신분으로 자신의 아버지와 아들 영창의 명복을 빌기 위해 칠장사를 중수하고 친필 족자 등을 하사하여 안성과 각별한 연이 닿았다. 인목대비는 이외에도 전국 명산의 고찰을 다니며 기도를 올리고 글을 남겼고, 폐위된 광해군은 19년을 더 살며 유배지를 전전하다 제주도에서 숨을 거두었는데, 대조적인 두 사람의 말년에 한 가지 접점은 절절한 외로움 아니었을까?

영창대군묘에서 가까운 죽산면에는 삼국시대부터 영남길의 요충지를 지켜온 죽주산성이 우뚝 서 있다. 높지도 않은 비봉산을 둘러 외성, 중성, 내성 세 겹으로 쌓은 죽주산성에서 바라보면 사방으로 펼쳐진 평야가 시원하게 눈에 들어온다. 입지도, 산세도, 성벽을 얹힌 설계도 훌륭하지



영창대군묘



칠장사 대웅전



죽주산성 외성

만 무엇보다 성안에 물이 풍부하다. 1236년 몽골의 3차 침입 당시 죽주방호별감 송문주 장군이 이끄는 고려의 군민들은 15일간 수성전을 펼쳐서 이곳을 지켜냈다.



죽주산성 집수지

죽주산성을 처음 찾은 4월 초, 산성은 조용하고 평화로웠다. 적에게는 난공불락이었으나 그 안에서 거니는 사람들에게는 이보다 호의적일 수 없다. 동북쪽으로 외성을 따라 걸으면 치성과 포루 너머로 장호원까지 보이고, 작년까지도 살아 있었을 듯한 거대한 오동나무가 차분하게 방문자를 맞는다. 영남길은 어느 쪽을 바라보아야 가닥이 잡히려나. 이곳을 지나갔다는 조선통신사들에게 안성 객사는 좀 거리가 있고, 죽산에 따로 객사가 있었음이 분명하다.

한동안 심심찮게 안성을 다녀보고 결론을 내렸다. 이곳은 역사여행을 즐기는 이들에게 알찬 종합선물세트이다. 아우르는 유적의 시대와 종류도 다양하고 보존에도 정성을 들인다. 여전히 유기가 생산되어 전국으로 팔려나가고, 남사당패와 태평무 전수자들이 상설공연장을 품고 있는 고장. 전국에 흩어져 있는 무수한 다른 객사와 산성과 시장 국밥에도 관심이 타오르게 만들어준 고마운 새 친구이다. 🍵

황문영 회원

# 러시아 그림은 처음이야

## 국립 트레차코프 미술관



꽁꽁 얼어붙은 길 위에서 아이 셋이 물통을 실은 썰매를 끌고 있다. 어찌나 추운지 흘러 넘친 물은 바로 고드름이 되어 물통을 온통 덮어버렸는데, 그것을 뒤에서 한 청년이 받치고 있다. 꽁꽁 싸맨 채 고개를 푹 숙이고 길을 재촉하는 행인, 훑날리는 스카프와 머리카락, 그리고 바닥에 날리는 눈을 보면 매서운 바람이 불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렇게 혹독한 겨울 날씨에도 밧줄을 잡은 아이의 손은 알팍한 장갑 하나 끼지 못한 맨손이다. 왼쪽 남자 아이의 길다 못해 땅에 닿을 것 같은 남루한 코트 소매를 보면 어른 옷을 얻어 입은 것 같다. 매서운 바람 때문인지 지쳐서 그런 건지 아이들의 눈은 계슴츠레하다.

이들이 어린 나이부터 노동 현장에 뛰어들어야 했던 견습공들이라는 것을 알고 나니 그림이 달리 보인다. 아동 인권도 복지도 없던 시절에 가진 것 없이 태어난 아이들은 가능한 빨리 철들어서 어른이 되어야 생존에 유리하다. 이 아이들도 앓던 얼굴로 제 몫의 일을 하고 있다. 문득 소녀가 입은 옷에 눈이 갔다. 온통 회색과 갈색으로 이루어진 그림에 비록 밑단이 닳아서 너털너털해졌을 망정 분홍색 꽃무늬 치마를 그려 넣은 화가는 우리에게 어떤 신호를 보내고 싶었던 걸까? 그런 마음으로 다시 살펴보니 썰매는 곧 내리막길로 접어든다는 점을 깨달았다. 이제 이들은 작업장까지 좀 수월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회색빛 세상을 헤쳐나가는 소녀의 마음에 아직은 분홍색이 남아 있으려나? 춥고 고된 이 상황이 당장은 변하지 않더라도 이 아이들 속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에너지가 남아 있다면 좋겠다. 삼두마차라는 뜻의 이 그림 제목처럼.

1년여 전에 처음 러시아 땅을 밟았다. 여행의 주목적지는 상트페테르부르크였기에 모스크바를 볼 수 있는 시간은 비행기 타고 도착한 다음날 하루와 돌아와서 비행기 타고 떠나기 전 반일이 전부였다. 도착했을 당시에 이 일정이 그다지 어렵다고 느껴지지 않았다. 비가 주룩주룩 오는 한밤중에 도착하자마자 택시기사에게 눈 뜨고 코 베이는 수준으로 거하게 바가지를 쓰고 하룻밤 자고 일어나니 기분도 날씨도 약간 회색. 일단 관광객의 필수 코스인 붉은 광장에 갔다가 넘실거리는 인파에 질려 도망치듯이 강가로 나가 걷기 시작했다.

구세주 그리스도 성당을 거쳐 건너편에 있는 푸시킨 미술관에 한참 줄 선 끝에 들어갔다. 컬렉션은 명성에 걸맞게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풍부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곳은 웬지 미술품 창고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점점 피곤함을 느꼈다. 미술관 구경은 이제 그만할까? 널모레 예르미타시 박물관에도 갈 거잖아. 그래도 소비에트식 뷔페식당에서 늦은 점심을 먹고 나니 다시 의욕이 생겨 국립 트레차코프 미술관으로 향했다. 기껏 러시아까지 왔는데 다른 나라 그림만 보고 갈 수는 없다. 아무리 그래도 일리야 레핀은 보고 가야지. 내가 유일하게 이름을 아는 러시아에서 활동한 화가.

고풍스러운 저택이었던 푸시킨 미술관에 비해 이 미술관 건물은 본연의 용도를 위해 지어진 곳이라 동선도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작품 감상에 집중할 수 있는 곳이었다. 전시실이 작가에 따라 구분되어 있는 것도 좋았다. 18세기 러시



바실리 페로프, <트로이카, 물 나르는 견습공들>



바실리 페로프, <도스토예프스키 초상>



니콜라이 니콜라예비치 게, <톨스토이 초상>

아 귀족들의 초상화가 즐비한 전시실들을 거쳐 19세기 전시실로 넘어가면서 드디어 신세계를 만났다. 갑자기 공기가 바뀌고 눈이 번쩍 뜨이는 기분. 러시아 미술에 대해선 완벽한 백지상태였는데도 여태까지 봤던 서구의 그림과 차별되는 무언가가 느껴져서 이곳에 정말 잘 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서두에 언급한 물을 나르는 견습공들을 그린 바실리 페로프 전시실에서도 그러했다. 이들이 러시아 사람들이구나. 그들은 이런 일을 겪었구나. 이런 것이



이반 시시킨, <소나무 숲의 아침>

비판적 리얼리즘이란 거구나. 이것이 러시아 그림이구나. 그리고 화가는 그림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정말 많았구나. 그런 화가들이 참 많았구나.

페로프는 제정 러시아 시대에 반체제적인 미술 운동을 전개하며 이후 러시아 미술계에 큰 영향을 끼친 '이동파'의 일원으로 활동했다. 일리야 레핀도 여기에 속했다. 이들은 귀족만이 아니라 러시아의 모든 사람들에게 동시대 예술 작품을 감상할 기회를 많이 주기 위해 여러 도시로 이동해가며 전시회를 개최하고 작품활동을 했다. 흑한의 날씨에도 기차를 타고 시베리아 곳곳을 다니며 전시회를 열었다. 여기에 이 미술관의 토대를 만든 파벨 트레차코프라는 컬렉터가 결정적인 도움을 줬다. 그는 자기의 기호나 취향에 맞지 않더라도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되면 비평가의 반대와 검열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작품을 구매했다고 한다. 또한 당시 존경받는 문인들의 모습을 최고의 화가들을 통해 남기기 위해 직접 다수의 초상화들을 주문했다. 톨스토이의 예를 들면 초상화 남기기를 번번이 거절했던 그를 설득하여 이반 크람스코이, 니콜라이 게, 일리야 레핀 등이 그의 다양한 모습을 담은 걸작들을 남겼다. 이렇게 트레차

코프는 평생 동안 많은 화가들과 함께하며 큰 힘이 되어주었고 죽기 전에 자신의 컬렉션을 모스크바 시에 기증했다.

러시아 사람들을 그린 작품들만큼 광활한 러시아의 자연을 묘사한 작품들도 인상적이었다. 숲, 곰, 늑대 그리고 눈 등등. 역시 이동파 작가인 이반 시시킨이 아직 안개도 채 가시지 않은 아침 소나무 숲의 곰 가족을 그린 그림을 보면서 긴장을 풀어본다. 그래 여기는 인터넷에서 불곰국이란 별명이 붙은 나라였지! 웬지 곰이 더 친근하게 느껴지는 곳. 아기 곰들 덩치가 아직 작은 것을 보니 봄날 아침인가 보다. 그리고 보니 일년의 절반이 겨울인 러시아의 곰들과 사람들에게 봄이라는 계절과 아침 햇살은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소중한 것 같다. 러시아를 떠나던 날 공항 사탕가게에서 이 그림을 다시 만났을 때 어찌나 반가웠는지! 초콜릿 포장지에 이 그림이 있기에 얼른 샀다. 그뿐 아니라 물, 과자, 사탕 포장지에도 쓰인다고 하니 러시아 사람들도 이 그림을 많이 좋아하나 보다.

폐관 시간이 다가오면서 마음이 급해지는 중에도 한 그림 앞에서 제법 오랫동안 서성였다. 검푸른 바다에 파도가 일렁거리는 단순한 풍경인데 웬지 뱃멀미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면서도 계속 바라보고 싶다. 어떻게 바다를 이렇게 잘 그릴 수 있을까? 바다를 보며 느끼게 되는 공포와 경외감과 동경하는 마음까지도 같이 그려낸 것 같다. 크림반도의 바닷가 마을에서 태어나 평생 수없이 많은 바다를 그려 명성을 얻었던 이반 아이바좁스키의 작품이다. 6000여 점이나 되는

그림을 남겼으니 이보다 더한 수작이 분명 존재하겠지만 그래도 나는 첫눈에 반한 이 흑해 그림을 가장 좋아할 것 같다. 나중에 그에 대해 조사하다가 알게 된 재미있는 사실은 1977년 소련 과학자가 발견한 소행성에 그의 이름을 따서 '아이바좁스키3787'이라고 명명했다는 것이다. 바다를 사랑하던 화가는 사람들에게 사랑 받아 밤하늘의 작은 별이 되었다.

그런데 일리야 레핀은? 유감스럽게도 한 점도 볼 수 없었다. 그의 그림이 있어야 할 전시실엔 다른 화가의 특별전이 열리고 있었다. 이유는 폐관 시간이 되어 쫓겨나듯이 나가서 로비에 붙어 있는 포스터를 보고서야 알게 되었다. 걸어서 30분 거리에 있는 신관에서 일리야 레핀 특별



이반 아이바좁스키, <흑해>

전을 하느라 본관의 그림들이 다 그리로 간 것이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그 날은 특별전 마지막 날이었다. 이럴 수가! 며칠 후 재방문하더라도 신관에서도 본관에서도 레핀의 그림은 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렇게 안타까움을 남기고 우리의 트레차코프 미술관 관람은 끝났다.

그래도 미련을 버리지 못해 모스크바에 돌아와서 공항에 가기 전에 재방문했다. 첫 방문 때 이곳 기념품 가게에서 봤던 물건들이 눈에 아른거려서. 이리저리 다녀보니 트레차코프 미술관 기념품은 타관광지나 박물관에 비하여 월등하게 품질이 좋으면서도 가격마저 저렴했기 때문이다. 고품질 인쇄 그림이 가득 찬, 실하고 두꺼운데 가격까지 좋은 일리야 레핀 도록과 이반 아이바좁스키 도록을 넘겨보며 아쉬움을 달랬다. 낮잠 자는 레핀부인은 정말 보고 싶었는데……. 그래도 아쉬움이란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닌가 보다. 전혀 모를 땐 없었는데 조금이라도 알고 나서는 생긴 걸 보니 말이다. 언젠가 그곳에 다시 가서 이 아쉬움을 풀고 싶다. 🐾

서유미 회원





## 2020년 국립중앙박물관 전시 계획



### 1 특별전시

기간	구분	명칭
04.06. ~ 10.11.	특별전	꽃비 내리다-보물 제1270호 영천 은해사 괘불
05.06. ~ 09.31.	특별전	시대를 짚어낸 재상: 백사 이항복 종가 기증전
07.21. ~ 09.27.	특별전	새 보물 납시었네, 신국보보물전 2017-2019
11.10. ~ 2021.01.31.	특별전	신과 인간의 만남 - 중국 쓰촨 고대문명, 썬싱두이 三星堆

### 2 디지털 실감 영상관

기간	구분	전시관
05.20.~	영상전시	영상관 1,2,3 및 경천사 십층석탑

### 3 온라인 전시

기간	구분	명칭
중앙박물관 소속박물관	VR전시	국립중앙박물관 홈페이지



청자 상감 모란 구름 학 무늬 베개, 청자실

## 낮잠

가만히 있어도  
등줄기에 땀이 배는 한여름

베개 베고 대청마루에 길게 누워  
뒷목덜미에 닿는 서늘함으로 땀 식히며  
간간이 이마를 훑고 지나가는 바람에  
스르르 단잠으로 빠져든 어느 여름날

은은한 비췌빛에서  
한여름의 나른한 오후를 느낀다.

# 국립중앙박물관회는

1974년 9월 9일 발족하여 1981년 3월 7일 사단법인으로 설립했다. 그동안 洪鐘仁 초대 회장을 비롯하여 金一煥, 李大源, 金相萬, 金聖鎭, 鄭鎭肅, 金榮秀, 俞相玉, 柳昌宗, 金正泰 회장을 거쳐 2017년 11월 申聖秀 회장이 취임했다.

會長 | 申聖秀  
 副會長 | 尹在倫 朴殷寬  
 理事 | 郭東錫 金錫洙 金信韓 南秀淨 朴善正 朴禎原  
 禹燦奎 尹碩敏 李玉卿 趙顯相 崔杜準 許榕秀  
 洪錫肇 洪政旭 裴基同  
 監事 | 金教台 李教祥  
 事務局長 | 李在範

회원은 현재 3,000여 명으로 일반·특별회원과 기부회원이 있고, 국립중앙박물관에 유물이나 자료를 기증한 분도 평가·심의하여 기부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기부회원은 백두 백억 원, 청룡 오십억 원, 백호 삼십억 원, 주작 십억 원, 현무 오억 원, 천마 일억 원, 금관 오천만 원, 은관 삼천만 원, 청자 일천만 원, 백자 오백만 원, 수정 이백만 원 이상으로 한다.

**백호회원**  
 삼성전자

金教台  
 金南延  
 金承謙  
 金信韓  
 金芝延  
 都炯泰  
 朴炳燁  
 朴容允  
 朴善正  
 宋秉峻  
 李教祥  
 張善霞  
 張仁宇  
 曹榮峻

삼정회계법인 대표  
 (주)동훈 대표이사  
 서릉지주(주) 대표이사 의장  
 대성산업주식회사 사장  
 (주)컨셉 대표이사  
 갤러리현대 대표이사  
 팬택씨앤아이 부회장  
 전 국립중앙박물관회 이사  
 대선제분(주) 대표이사 사장  
 (주)계임빌·(주)킴투스 대표이사  
 서울가든호텔 사장  
 (주)교원인베스트 대표이사  
 선인자동차·고진모터스 대표이사  
 우양산업개발(주) 대표이사  
 (주)이도 대표이사  
 두산메카텍(주) 부회장  
 창성그룹 부회장  
 가현문화재단 이사장  
 코리아나화장품 회장  
 경신금속(주) 대표  
 일우재단 이사장  
 서울옥션 부회장  
 세아제강 부사장  
 MashupAngels 대표  
 금강공업(주) 사장  
 전 서울시향 예술감독  
 사우스케이프 회장  
 (주)동남유화 회장  
 MIGHT&MAIN(주) 사장  
 (주)ALTO·(주)ALTEK 사장  
 GS건설 사장

**주작회원**  
 金正泰  
 尹光子

하나금융그룹  
 회원

**은관회원**  
 姜院基  
 金寧明  
 金英姬  
 金載勳  
 金鍾漢  
 柳芳熙  
 柳智勳  
 朴英柱  
 朴知原  
 徐載亮  
 成來恩  
 成彌鎬  
 宋 哲  
 辛炳讚  
 梁洪碩  
 柳昌宗  
 尹賢慶  
 李廷龍  
 林鍾勳  
 韓惠舟  
 金大煥  
 金益煥  
 金知爰  
 李柱翰  
 洪進基  
 李常宰  
 洪正道

**현무회원**  
 朴殷寬

(주)시몬느 회장

회원

**천마회원**  
 金錫洙  
 南秀淨  
 孫昌根  
 申聖秀  
 申惠澈  
 尹碩敏  
 尹章燮  
 尹在倫  
 鄭溶鎭  
 趙顯相  
 千信一  
 許榕秀  
 洪錫肇  
 洪政旭

동서식품(주) 회장  
 (주)앤애플 사장  
 소장가  
 고려산업(주) 회장  
 SK에너지  
 태영그룹 회장  
 전 정보문화재단 이사장  
 정보문화재단 이사장  
 신세계그룹 부회장  
 효성 총괄사장  
 세종문화재단 이사장  
 GS에너지 대표이사 사장  
 (주)BGF리테일 회장  
 올가니카 회장

오리온 베트남 법인 대표이사  
 (주)에을 이사장  
 회원  
 영풍제약 대표이사  
 (주)종합전기 대표  
 (주)풍산주택 회장  
 (주)SB Investment 사장  
 아성다이소 부사장  
 두산중공업 대표이사 회장  
 전 국립중앙박물관회 부회장  
 (주)영일무역홀딩스 대표이사 사장  
 광성기업(주) 대표  
 성문출판사 대표  
 전 국립중앙박물관회 사무국장  
 대신증권(주) 사장  
 전 국립중앙박물관회 회장  
 동화약품 상무  
 가나아트갤러리 대표이사  
 한미헬스케어(주) 대표이사  
 (주)인팩 대표이사  
 진양자산관리주식회사 대표  
 (주)슈퍼리어·슈퍼리어홀딩스(주) 사장  
 한세실업(주) 부회장  
 한세엔케이(주), (주)한세드림 대표이사  
 (주)삼익유니버스 이사  
 마리오아울렛 이사  
 (주)삼화택시 대표이사  
 중앙그룹 대표이사 사장

**금관회원**  
 禹燦奎  
 姜德壽  
 庚 圓  
 權俊一, 具在善

학교재 대표  
 전 (주)STX 회장  
 극락사 주지  
 Actium Group 부회장

**청자회원**  
 姜承模  
 高基瑛  
 具東輝  
 具本權  
 具本商  
 具本赫  
 具瑗姬  
 鞠賢永  
 權志德

KP그룹 부회장  
 (주)금비 부회장  
 (주)LS 전무  
 IS-Nikko동제련(주)사업전략부부장/상무  
 LIG 회장  
 에스코홀딩스 부사장  
 한성플랜지 이사  
 세기상사(주) 기획팀장  
 아이에스지주 전무

朴正遠  
 朴俊泳  
 朴海春  
 方正梧  
 裴允植  
 白晉宇  
 徐東姪  
 薛允碩  
 孫元洛  
 申碩均  
 辛永茂  
 慎昌宰  
 沈宗玄  
 楊仁集  
 梁汰會  
 魚湖善  
 吳勝敏  
 吳治勳  
 柳東鉉  
 俞承熹  
 柳英芝  
 尹 寬  
 尹普鉉  
 尹禎鉉  
 尹禎善  
 李甲宰  
 李圭鎬  
 李起雄  
 李萬圭  
 李美淑  
 李善眞  
 李秀卿  
 李承勇  
 李英純  
 李鈴子  
 李容濬  
 李宇成  
 李宇鉉  
 李雲卿  
 李胤基  
 李仁洙  
 李宰旭  
 李濬宇  
 李芝衡  
 李哲雨  
 李學俊  
 李海珍  
 張同鎭  
 張升準

신대양제지(주) 대표이사  
 삼양홀딩스 Global 성장PU 상무  
 (주)피어나조경 대표이사  
 (주)에을 명예이사장  
 한화 솔루션 부사장  
 키움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  
 삼익악기 사장  
 유리자산운용 경영기획실장  
 한영회계법인 부대표  
 스무디킹 Global CEO  
 동일고무벨트(주) 부회장  
 김&장 법률사무소  
 한국청소년연구소 이사장  
 제일화재 이사장  
 (주)행남 대표이사  
 지리산 문화관 관장  
 지알엠주식회사 상무  
 한익환서울아트박물관 관장  
 제일기획 스포츠사업 총괄사장  
 (주)NXC 대표이사  
 서양화가  
 태아산업(주) 부사장  
 성신양회(주) 부회장  
 (주)엔씨소프트 대표  
 히든베이호텔 사장  
 국제약품 대표이사 사장  
 (주)퓨처플레이 대표이사  
 아주호텔앤리조트 대표이사  
 덴톤스리(주)만병철교육그룹파트너변호사  
 진주협 대표이사 부사장  
 용인대학교 총장  
 영은미술관 관장  
 아시아나IDT 대표이사 사장  
 V&S자산운용 부장

TV CHOSUN 전무  
 (주)한국제인모터 대표이사  
 (주)동성코퍼레이션 전무  
 회원  
 대한광통신 사장  
 (주)경동홀딩스 상무  
 아름지기 이사장  
 법무법인 세종 대표  
 대산문화재단 이사장  
 한국기구박물관 부관장  
 (주)진로 대표이사 사장  
 (주)비상교육 대표이사  
 골드만삭스 상무  
 동일산업(주) 대표이사 사장  
 대한제강(주) 대표이사 사장  
 인성산업(주) 부사장  
 코리아나 화장품관 관장  
 유금와당박물관 기획실장  
 BlueRun Ventures 대표  
 호림박물관 이사  
 (주)뉴라이트전자 대표이사  
 (주)성보화학 대표이사  
 삼일회계법인 전무  
 (주)코오롱 전무  
 열화당 대표  
 에머슨퍼시픽 대표이사  
 삼표산업  
 목금도갤러리 관장  
 (주)프라코 재경본부장/전무  
 (주)에이티파트너스 대표이사  
 한국미술협회 회원

洋賢財團  
 田永采  
 田潤洙  
 鄭瑛海  
 丁恩美  
 鄭義宣  
 鄭在昊  
 鄭志伊  
 趙炳舜  
 曹榮美  
 曹在顯  
 趙希卿  
 陣在旭  
 千碩圭  
 崔世勳  
 崔善默  
 崔仁善  
 崔再源  
 崔昌和·鄭惠淑  
 崔惠玉  
 한국도로공사  
 韓碩炫  
 韓榮宰  
 咸泳俊  
 許正錫  
 許辰秀  
 玄明官  
 玄智皓  
 胡鍾一  
 胡昌成  
 洪範碩  
 洪碩杓  
 洪誠杓  
 洪元福, 金根鎬  
 洪正國  
 洪禎寅  
 洪振碩  
 黃仁奎  
 Joseph Bae  
 Mark Tetto  
 黃錫煥  
 許致烘  
 鄭英秀  
 朱信鴻  
 林志鮮  
 민병철  
 金賢副  
 潭舒元  
 尹日榮

(주)경농 부사장  
 (주)이테크건설 부사장  
 OCI 사장  
 남양유업 전문위원  
 스위스그랜드호텔 사장  
 수원대학교 이사장  
 전남일보 사장/발행인  
 흥아해운 부사장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판사  
 롯데쇼핑 총괄사장  
 크리스티코리아 대표  
 NAVER 이사회 의장  
 (주)파워맥스 사장  
 MBN·매일경제 사장·부사장

(주)한길봉사회 이사장  
 중국미술연구소 대표  
 회원  
 블룸앤코 대표  
 현대자동차 부회장  
 대호물산(주) 대표이사  
 현대무비스 전무  
 성암고서박물관장  
 경동소재 대표이사  
 (주)가온소사이터티 대표  
 하나유비에스 대표  
 천일식품(주) 대표  
 (주)카카오 CFO  
 회원  
 SK(주) 부회장  
 회원·자원봉사  
 한국도로공사  
 프로듀서  
 노루홀딩스 회장  
 (주)오투기 회장  
 일진홀딩스(주) 대표이사  
 SPC(주) 부사장  
 (주)화승R&A 부회장  
 호성흥업 회장  
 (주)더벤처스 대표이사  
 백미당 사업본부장  
 고려제강 부사장  
 고려상사(주) 부회장  
 회원  
 (주)BGF 대표이사  
 JTBC 상무  
 남양유업(주) 상무  
 CNCITY에너지 대표이사  
 KKR Asia Limited 대표  
 TCK Investments 전무  
 (주)케이지에프 전무  
 GS리테일 상무  
 은산그룹(ES Creators, ES Investor) 대표이사  
 (주)푸른파트너스자산운용 대표이사  
 보해양조(주) 대표이사  
 에피네티에퀴티 파트너스 대표이사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 상무  
 오리온  
 영안주식회사 대표이사



국립중앙박물관회  
FRIENDS OF NATIONAL MUSEUM OF KOREA